

尹善道에게 있어서의 ‘理想郷’의 의미 작용 연구

- 杜甫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은경 (우석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武陵桃源型’ 이상향으로서의 ‘浣花溪’ |
| II. 理想郷의 모델로서의 杜甫의 ‘浣花溪’ | III. ‘蓬萊山型’ 이상향으로서의 ‘芙蓉洞’ |
| 1. 〈題龔仁觀巖 四首〉 | IV. 남은 문제: 맺음말을 곁하여 |

I. 머리말

윤선도의 50세 이후 후반기 삶의 중심이 되는 보길도 부용동과 해남 금쇄동·문소동·수정동은 단순히 「어부사시사」와 「산중신곡」의 창작 배경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고산의 문학과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길도는 고산이 51세 되던 해 강화도에서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탐라에 들어가 은거하려고 항해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여 정착한 곳이고, 금쇄동은 53세에 金鎖 錫櫃를 얻는 꿈을 꾸고 며칠 안 되어 발견한 장소이다.

지금까지 이 장소에 대한 관심은 윤선도 문학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서, 다시 말해 문학이라는 주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부수적 자료로서 언급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관점을 달리하여 이 장소가 윤

선도에게 있어 지니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그 부수적 자료로서 그의 시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고산은 이 곳을 즐겨 ‘神仙의 땅’(仙區), ‘蓬萊’ 등으로 불렀으며 자신을 ‘芙蓉仙人’으로 일컫곤 했다. 蓬萊는 方丈 瀛洲와 더불어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三神山 중 하나이며, 三神山은 滄洲, 武陵桃源 등과 더불어 ‘理想郷’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이상향이란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가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고산에게 있어 부용동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이상향이 현실로서 구현된 곳이다.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 밑그림은 이미 20여년 전 시로 표현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된 공간이 부용동인 것이다. 이 장소를 둘러싼 그간의 언급이, 시조문학 창작의 산실이라는 전제하에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이 장소가 오랜 세월 품어 온, 이상향에 대한 윤선도의 비전 혹은 밑그림이 현실의 공간으로 구현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 이상향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계기를 통해 이 구체적 장소가 고산의 삶에서 이상향으로 자리잡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이 과정에 두보의 ‘浣花溪草堂’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보와의 비교가 본 연구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편의상 ‘부용동’으로 칭해지는 장소는 해남의 금쇄동, 문소동, 수정동을 포괄한다. 연구자에 의해 부용동은 「어부사시사」의 창작 배경, 해남 일대는 「산중신곡」의 창작배경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으나, 윤선도가 이 두 지역을 합쳐 모두 ‘蓬萊’ ‘蓬壺’ ‘蓬海’로 부르고 있고¹⁾ 그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에서 이 장소들이 지니는 의미가 동일하기에 본고에서는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1) 금쇄동을 蓬壺로 부른 예는 <初得金鎖洞作>에서 볼 수 있다.

II. 理想郷의 모델로서의 杜甫의 '浣花溪'

1. 〈題鄭仁觀巖 四首〉

아래에 인용하는 시작품 〈題鄭仁觀巖 四首〉는, 이상향에 대한 윤선도의 최초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상향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끼쳐진 두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감지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長川一道直而斜	긴 시내 한 길로 곧게 흐르다가 굽어지고
川口奇巖眼界華	시내 어귀 기이한 바위에 시야가 화려하네
若使主人開小宇	만일 내가 여기에 작은 집을 연다면
浣花流水不能誇	완화계 흐르는 물도 자랑할 수 없으리.

眼中佳景極森羅	아름다운 경관 눈 속에 뻗뻗이 늘어섰으니
笑殺山川伎量多	산천의 재주 많음을 크게 웃노라.
若得茅齋巖上着	만일 띠집을 바위 위에 지을 수 있다면
從他朝暮供吟哦	그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시를 읊게 되리라 ²⁾

고산은 1616년 30세 되던 해에 예조판서 李爾瞻을 탄핵하는 「丙辰疏」를 올리고 함경도 慶源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하게 되는 유배 중 그 첫 번째에 해당한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윤선도는 정치적 세파와 질병에 시달릴 때마다 세속 잡사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곤 했다. 그리고 이런 염원이 시작품에서 神仙世界를 동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보길도를

2)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윤선도 작품 및 연보는 『고산유고』(尹孤山文化事業會, 1996)에 근거하며 시 번역은 주로 『國譯 고산유고』(이형대 외 3인 옮김, 소명출판, 2004)에 의거했다. 앞으로 인용작품에 대한 각주는 생략한다. 그리고 全文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제목 뒤에 '全文' 표시를 하기로 한다.

발견하여 정착한 뒤에는 더욱 仙界에 관계된 시어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 작품은 첫 유배지인 경원도호부의 남쪽 45리에 있는 娛弄川 가의 누대에 올라 지은 것으로 총 四首로 되어 있는데, 인용한 것은 그 중 제 2주와 3수이다. 제 1수에 등장하는 ‘오농천’은 동으로 흘러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이다.

이 시는 두 작품 모두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냇물’과 ‘바위’를 들고 있음이 눈에 띈다. 제 1, 2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고 3, 4구에서 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두보가 완화계 초당에서 시를 읊듯 자신도 시를 지으며 유유자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두 시를 살펴 보면, 윤선도가 완곡하게 자신을 두보에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서 두보의 초당이 있는 成都의 浣花溪’를 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윤선도는 ‘완화계 흐르는 물도 자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첫째는 ‘완화계’가 윤선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대표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만일 시내와 바위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집은 완화계 못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밤낮없이 시를 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셋째는 두보의 초당이 있었던 완화계를 비교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두보에게 빗대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추정은 아래 두 사람의 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入戶青山不待邀	문에 드는 청산은 맞이함 기다리지 않고
滿山花卉整容朝	산 가득한 화초는 용모 가다듬고 조화를 하네
休嫌前瀨長喧耳	앞 여울 오래 귀에 시끄러워도 꺼리지 말라
使我無時聽世囂	세상 떠드는 소리 내 귀에 들려올 때 없게 해주네

(〈堂成楷後漫興〉)

旁人錯比揚雄宅 옆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양웅의 집에 비기기도 하지만
 懶惰無心作解嘲 게으른 나는 解嘲를 지을 마음조차 없다.

(〈堂成〉, 『杜少陵詩集』 9권)³⁾

두 수 중 위의 것은 고산의 〈堂成禮後漫興〉인데 역시 경원 유배시절 쓰여진 것으로, 거처할 작은 집을 지은 뒤의 흥취를 읊은 시이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시구 ‘甌山⁴⁾ 동쪽 기슭에 띠집 지어 내 몸을 부치네’ (“甌岳之東麓 茅窩貯我身”, 〈復用前韻〉) 를 함께 검토해 보면 〈堂成後漫興〉에서의 “堂”은 〈復用前韻〉의 “茅窩”와 결국 같은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집’은 〈題鄭仁觀巖〉에서 노래된 가상의 이상향의 1차적 실현인 셈이다.

두보의 〈堂成〉은 성도 초당을 지은 뒤의 감흥을 읊은 것이다. 시에 나오는 揚雄의 자는 子雲이며 蜀郡 成都 사람이다. 한 다락의 밭과 한 채의 집을 가지고서 대대로 농사와 잠업으로 생계를 꾸려 왔는데 哀帝 때 丁傅와 僮賢이 정권을 장악하자 ‘經典은 周易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여 『太玄經』을 지어 담박한 생활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를 “玄尙白” 즉 ‘검은 것이 아직 다 검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비웃었는데, 이 말은 아직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양웅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解嘲」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윤선도의 〈堂成後漫興〉을 읽어 보면 ‘세상 떠드는 소리’가 두보 시에서 ‘세상사람들이 양웅을 비웃는 소리’로부터 轉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두보는 자신을 양웅에 비기고 있고, 윤선도는 자신을 그런 두보에 비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선도는 두보의

3) 본고에서 인용하는 두보의 시는 淸의 仇兆鰲 撰 『杜詩詳註』를 저본으로 하여 鈴木虎雄이 註解한 『杜少陵詩集』(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1978)에 의거한다. 앞으로 인용작품에는 이 책의 卷數만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全文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제목 뒤에 ‘全文’ 표시를하기로 한다.

4) 증산은 경원도호부의 서쪽 3리에 있으며, 산꼭대기에는 시루와 같은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詩想을 빌어옴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두보와 양웅에 견주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題鄭仁觀巖 四首> 중 제 3수의 3, 4구 ‘만일 띠집을 바위 위에 지을 수 있다면/ 그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시를 읊게 되리라’는 두보의 아래 시,

茅屋還堪賦 초라한 띠집이지만 그래도 시를 지을 수 있으니
 桃源自可尋 桃源의 세상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네
 (<春日江村 五首>·1, 14권)

에서 詩想을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春日江村 五首>도 성도 초당 시절 지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윤선도는 두보가 桃源으로 여기는 ‘완화계 초당’을 자기 시 <題鄭仁觀巖 四首>·2에 인용함으로써 가상의 띠집을 桃源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완곡하게 두보에 빗댄으로써 결국 완화계 초당이 자신에게도 桃源, 즉 이상향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成都의 완화계는 두보의 居宅이 있던 곳으로 평생 遊離漂泊하던 두보가 嚴武의 경제적 지원과 도움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가족과 더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던 곳이다. 두보는 여기서 48세 12월말부터 54세까지 약 5년 5개월간을 살았는데 이때 지은 작품들은 다른 시기의 것에 비해 자연친화적이고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과 가족·이웃과 함께 하는 단란한 일상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⁵⁾

윤선도는 두보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유배상황에 처해 평생 정치적 불운을 겪었던 두보와 그의 완화계 초당을 떠올리며 이런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두보에 견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5) 이창룡, 『韓中詩의 比較文學的 研究』(一志社, 1984), 189면; 全英蘭, 『杜甫, 忍苦의 詩史』(태학사, 2000), 73-75면

두보: 成都: 浣花溪: 錦江: 草堂: : 자신: 경원: 오농천: 두만강: 巖上 茅齋

이 대응은 '두보의 완화계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곳에 작은 집을 짓고 幽居하면서 詩作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을 염원하는 고산의 마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런 곳이 바로 고산이 꿈꾸었던 이상향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幽居'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피하여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仕宦(出仕)에 뜻을 두지 않고, 다시 말해 '脫政治의 논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자연 속에 사는 '隱居'와 구분되는 개념이다.⁶⁾

이 시들을 검토함으로써, 고산은 첫째 경관이 아름다운 곳, 둘째 이상적인 幽居地, 셋째 세속의 잡사를 떠나 詩作에 몰두할 수 있는 곳을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보의 완화계 초당을 그 모델로 하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읽어낼 수 있다. 두보와 차이가 있다면 그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심신이 편안했던 시기였던 것에 비해, 윤선도의 경우는 '유배'라고 하는 고초를 겪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고산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품은 고산의 염원은 약 20여 년 후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는데 <題鄭仁觀巖>에서의 巖上 茅齋는 수정동의 '人笑亭'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시조에서는

山水間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호노라 (〈山中新曲〉·漫興 1)

로 나타나 있다.⁷⁾ "산수간 바회"는 '오농천 물가 기이한 바위'⁸⁾의 代置인

6) 줄고, 「杜甫·尹善道·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2000.12.

7) 박준규는 이 시조의 중장 "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을 들어 떠집이 수정동의 '人笑亭'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박준규, 「孤山의 水晶洞苑林과 山中新曲」, 『孤山研

셈이다.

이 시에 표현된 假想의 茅齋와 20여 년 뒤의 부용동 ‘동천석실’·수정동 ‘띠집’을 대응시켜 보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경원 : 오농천(두만강) : 鄭仁觀巖上 茅齋
 보길도·해남 : 황원포 : 翠壁樓臺 洞天石室 ·마회 아래 띠집

이로 볼 때, 윤선도의 유거지이자 거택이 있던 부용동은 두보의 초당을 1차 모델로, 경원의 띠집을 2차 모델로 하여 조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거로서 완화계 초당의 성격이다. 비록 궁벽진 곳에 있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는 하지만 그곳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터전이며 시골집(田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 곳에서 지어진 두보의 시를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읊은 것이라도 산수의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배경으로서의 자연을 노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자연을 배경으로 가족·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두보의 시는 田園詩의인 성격은 떨지언정 山水詩로 규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완화계에 대해 언급한 후대의 시인들도 대개는 草堂 주변의 수려한 경관보다는 생활의 흔적에 중점을 두고 수용하는 양상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李穡의 <讀杜詩> 9)

錦里先生豈是貧 금리선생¹⁰⁾은 어찌 이리 가난한가
 桑麻杜曲又回春 두릉의 뽕밭 삼밭에 다시 봄이 돌아왔네

究』2호, 1988.

8) “娛儂川畔奇巖上”, <出乾元贈人 二首>.

9) 『동문선』 제 16권 칠언율시

10) 여기서 금리선생은 두보를 가리킨다. 錦里는 錦官城이 있는 成都 浣花溪 땅을 가리키는데 두보의 초당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두보를 금리선생으로 부르기도 한다.

鉤簾丸藥身無病 발 드리우고 환약 지으니 몸에 병은 없고
 畫紙敲針意更眞 종이에 바둑판 그리고 바늘 두들겨 낚시 바늘 만드니
 천진도 하구나

에서 보듯, '삼발' '뽕밭' '환약' 등 '생계'와 관계된 것, '종이에 바둑판 그리
 는 늙은 아내'와 '바늘 두들겨 낚시 바늘 만드는 어린 자식'¹¹⁾ 등 '가족'에
 관한 내용은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완화계 초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윤선도는 완화계 초당이 가지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흔적은
 捨象시키고 아름다운 '景觀'의 성격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화계 초당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완화계가 윤선도의 이상향의 한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곳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武陵桃源型' 이상향으로서의 '浣花溪'

완화계는 成都에 있는 물 이름이다. 두보는 업무의 도움을 받아 759년
 48세의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된다. 오랫동안 流轉하는 삶
 을 산 두보에게 이 시절은 한 곳에 정착하여 집다운 집을 짓고 生活苦에
 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던 시기이다. 이 곳은 예로부터 아름다
 운 경관으로 유명하여 두보도 시에서 이를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江村>은 이 곳에서의 생활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서, 완화계의 성격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淸江一曲抱村流 맑은 강 한 구비 마을을 안고 흐른다
 長夏江村事事幽 긴 여름 강마을에는 일마다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제비는 제멋대로 지붕 위로 넘나들고
 相親相近水中鷗 갈매기도 물 위에 떠서 서로 노닌다
 老妻畫紙爲碁局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11) <독두시>의 제 4구는 두보의 <江村>(『杜少陵詩集』9권)에서 빌어 온 것이다.

稚子敲針作釣鉤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리려釣鉤를 만든다
 多病所須惟藥物 잦은 병치레에 필요한 건 오직 약물뿐
 微軀此外更何求 微軀에 이밖에 또 무엇을 구하라

(〈江村〉全文, 9권)

이 시는 시선이 원거리로부터 점점 근거리로 옮겨지면서 중심에까지 클로즈업되는 양상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 먼저 가장 먼 곳에 ‘강물’이 흐르는 ‘景觀’이 제시되고 그 강물이 싸고 흐르는 ‘마을’이 언급되며, 이어 이리저리 날며 노닐고 있는 ‘갈매기’와 ‘제비’로 시선이 옮겨진다. 그리고 시적 화자쪽으로 더 가까이 근접한 곳에 ‘老妻’와 ‘稚子’가 있고 바로 그 옆에서 “微軀”로 표현된, 병치레가 잦은 ‘나’가 이를 지켜 보고 있다. 이 시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주공간으로서 ‘草堂’이 전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강촌에서의 평화로운 한 때를 묘사하고 있는 이 시는 완화계 초당이 神仙이 사는 仙界가 아닌, 인간이 사는 생활의 현장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곳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하는 여타 두보 작품이 그러하듯, 이 작품에서도 그 장소의 한 중심에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農務村村急 농사일로 마을마다 바쁘고
 春流岸岸深 봄날 강물은 기슭마다 깊어졌다
 ……(중략)……
 茅屋還堪賦 초라한 떠집이지만 그래도 시를 지을 수 있으니
 桃源自可尋 桃源의 세상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네

(〈春日江村 五首〉·1, 14권)

이는 봄날 강촌의 생활을 읊은 것으로 765년 두보의 나이 54세에 지어진 것이다. 여기서도 성도에서의 삶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완화계 초당을 桃源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桃源’은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이다. 여기서 ‘농사일로 바쁜 마을’은 이

곳이 생활의 터전임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록 초라하지만 ‘집 한 칸’ 지니고 있다는 것도 극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암시한다. 두보는 여기에 ‘시를 지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곳이 다름아닌 ‘도원’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두보가 ‘桃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시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사는 삶’이다. 桃源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시작품들을 살펴 보면, 그에게 있어 ‘理想郷’이라 할 ‘武陵桃源’을 두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故山多藥物 고향에는 약물도 많고
 勝槩憶桃源 경관도 좋아 桃源을 떠올리게 한다.
 (〈奉留贈集賢院崔國輔于休烈二學士〉, 2권)

山果多瑣細 산 속 과일은 조그만 것이 많고
 羅生雜橡栗 나란히 상수리나무나 밤나무가 섞여 자라고 있다
 ……(중 략)…
 緬思桃源內 이런 곳을 지날 때면 아득히 桃源을 떠올리며
 益歎身世拙 세상살이 서툰 내 신세를 더욱 한탄한다
 (〈北征〉, 5권)

첫 번째 인용 시구에서 고향은 洛陽을 가리키며, ‘약물’과 ‘좋은 경관’이 도원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예에서도 두보는 나무 중에서도 상수리나무나 밤나무 등 경제성이 있는 ‘有實樹’와 과일 등을 ‘武陵桃源’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躋險不自安 불안한 마음으로 險阻 한 길을 건다가
 出郊已滿目 성 밖으로 나가니 눈앞이 맑아진다
 溪迴日氣緩 계곡물은 굽이져 흐르는데 날은 따뜻하고
 逕轉山田熟 작은 길은 구불구불, 山中 밭 곡식은 잘 여물었다

鳥雀依茅茨 참새들은 띠풀로 인 지붕에 날아앉아 있고
 藩籬帶松菊 울다리 일대에는 소나무와 국화가 심어져 있다.
 如行武陵暮 마치 저녁무렵 무릉도원을 걷고 있는 듯
 欲問桃源宿 어디가 桃源인지 물어 하룻밤 유숙하고 싶구나

(〈赤谷西岫人家〉, 7권)

이 시는 산 속 깊이 들어갔다가 人家를 찾아 머무르려 했던 상황을 읊은 것이다. 인용 부분 제 1구와 2구는 人家를 찾기까지 험한 길을 묘사한 것이고, 제 3구와 4구는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광경을 읊은 것이며, 제 5구 이하는 마을의 풍경을 나타낸 것이다. 5구에서 ‘지붕’은 人家를 제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치 『桃花源記』¹²⁾에서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桃源에 들어갔던 상황을 재현하는 듯한 내용인데, 여기서 ‘밭에 있는 곡식’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人家’ 즉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桃源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도연명이 『도화원기』에서 묘사하는 무릉도원의 구성요소와 일치한다.

이 작품 외에도 새로 지은 초당 주변을 가꾸기 위해, 知人에게 ‘복숭아 나무 100그루’, ‘綿竹’, ‘오리나무’와 ‘소나무 묘목’ 및 ‘과실나무 묘목’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시¹³⁾, 심지어는 ‘甃盥’까지 부탁하는 시¹⁴⁾를 볼 때, 두보에게 있어 완화계가 山水美를 감상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생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완화계 초당’은 ‘궁벽진 곳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며 ‘이웃’과 어울려 사는, 그리고 ‘시’를 짓기에 적합한 ‘생

12) 『陶淵明集』 6권.

13) 각각 〈蕭八明府實處覓桃栽〉(9권), 〈從韋二明府續處覓綿竹〉(9권), 〈憑何十一少府邕覓榿木栽〉(9권), 〈憑韋少府班覓松樹子栽〉(9권), 〈詣徐卿覓果栽〉(9권)이 이에 해당한다.

14) 〈又於韋處乞大甃盥〉(9권)

활터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릉도원적 성격을 띠는 이상적인 幽居地인 것이다.

두보는 시 곳곳에서 ‘桃源’ 외에도 이상향으로서 ‘滄洲’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吏情更覺滄洲遠 벼슬아치 노릇은 滄洲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曲江對酒〉, 6권)

輕帆好去便 날랜 배를 타고 빨리 그 곳에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吾道付滄洲 나의 도는 滄洲에 의탁하고 있으므로.

(〈江漲〉, 11권)

孤負滄洲願 나는 滄洲에의 소망을 저버렸는데
誰云晚見招 누가 말했던가, 晩年에 郎官으로 불러갔다고.

(〈奉贈盧五丈參謀〉, 22권)

무릉도원과 창주의 쓰임을 비교해 보면, 생활터전으로서의 이상적 공간을 가리킬 때는 ‘桃源’을, 관직에 대응되는 곳으로서 자신의 도의 실현을 희구함에 있어 그 염원이 구현된 공간을 가리킬 때는 ‘滄洲’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중심’의 俗界的 이상향과 속계를 떠난 ‘별세계’로서의 이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무릉도원’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창주’는 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윤선도가 일찍이 이상향의 한 모델로 마음에 품었던 ‘완화계’는 전형적으로 무릉도원의 성격을 띠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밑그림으로 하여 이론 예비적 구현인 경원의 ‘茅窩’이나, 본격적 구현이라 할 부용동 ‘洞天 石室’ 수정동 ‘띠집’은 무릉도원적 요소에서 ‘생활’의 요소가 빠진 채,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로 변질되어 있다. 그리고 보길도 정착 이후, 생활의 요소를 뺀 이상향을 붕

래 또는 창주라는 표현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Ⅲ. ‘蓬萊山型’ 이상향으로서의 ‘芙蓉洞’

윤선도에게 있어 이상향의 모델이었던 ‘완화계’가 ‘봉래나 ‘창주’로 대치되는 시점은 보길도 정착 이후이다. 처음으로 유배를 갔던 30세와 보길도에 정착한 51세를 분기점으로 그의 생애를 구분해 보면, 정치적 세파를 겪기 전인 30세 이전의 제 1기, 30-50세의 제 2기, 51세 이후의 제 3기로 나눌 수 있다. 신선세계에 관한 언급이 특히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제 3기의 시에서이다.

고산은 평생 세 번의 유배에 다섯 군데 유배지를 전전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고, 두 번째는 병자호란 시 임금이 강화에 몽진해 있을 때 강화도 근처까지 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금께 달려와 문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52세 되던 해 경상도 靑德에 안치된 것이고, 세 번째는 효종의 죽음에 그 어머니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을 둘러싸고 『禮說』 2편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74세때 함경도 三水에 안치된 것이다. 이외에도 강직한 성품 때문에 반대파의 탄핵, 비방, 모해를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거나 파직당한 예가 부지기수였다. 그리하여 儒者로서 임금을 도와 經世濟民하려는 본분을 다 하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현실에 혐오를 느끼고 仕宦의 길에 마음이 멀어져 관직을 제수받고도 나가지 않거나, 자청하여 관직을 물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평소 身病이 많은 것도 큰 몫을 하였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여 윤선도는 일찍부터 出仕를 포함한 세속잡사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기를 꿈꾸었다. 이런 차에 강화도 사건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고산은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아래의 시 <偶吟>에 잘 나타나 있다.

誰曾有仙骨 다투라 일찍이 선골을 지녔던가?
 吾亦愛紛華 나 또한 번화함을 좋아하였네
 身病心仍靜 몸에 병이 드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途窮世自遐 길이 막히어 세상과는 저절로 멀어졌다네

고산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진 이유로 “身病”과 “途窮”¹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 떠나 마음을 고요히 하며 사는 것’을 仙骨의 풍도로 표현하고 있다.

현실 세파에 시달릴수록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의 마음은 커지고, 신선의 삶을 실현할 유거의 공간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파란을 겪기 전인 제 1기의 시에는 현실적 좌절과 세파를 크게 경험하지 않은 까닭에 신선세계에 노닐고자 하는 욕망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부용동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는 정치 현실에 대한 염증과 혐오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거의 삶을 염원하는 마음을 그는 “吾道付滄洲由來久”(滄洲로 가려는 내 뜻은 유래가 오래 되었네. <謝沈希聖辱和>)로 또는 “창주 오도를 예부터 일렀더라”(〈漁父四時詞·冬詞 9〉)로 표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仙界로 표현하고 있는 보길도 부용동은 1차적으로 이상적인 ‘유거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고산은 시 곳곳에서 부용동·금쇄동을 신선세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곳을 나타내는 말로 ‘滄洲’와 ‘蓬萊’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暮去朝來何事役 저물녘에 나가 아침에 오며 무슨 일 하나?
 滄洲閑弄釣魚舟 창주에서 한가로이 낚싯배를 짓누나 (<釣舟>)

時去遊戲玄圃閨風清興深 때때로 현포·낭풍¹⁶⁾에 노니니 맑은 흥 깊어라
 (<戲次方丈山人芙蓉釣叟歌>)

15) 여기서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儒者로서 임금을 도와 經世濟民의 포부를 펼치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이다.

16) 모두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곤륜산에 있다.

三公不換此仙山 삼공으로도 이 선산과는 바꾸지 않으리 (<遺懷>)

仙界인가 佛界인가 人間이 아니로다 (<漁父四時詞·冬詞 4>)

十年海上人 십 년 간 바다 위에서 지내던 사람
 一日塵間客 하루만에 속세의 객이 되었네
 引領望三神 목 빼어 삼신산 바라보건만
 彈文何百謫 탄핵하는 글로 어찌 백 번을 견책하는가?

(<次韻方丈山人>)

‘滄洲’는 바다에 있는 仙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보길도 앞바다 黃原浦를 가리킨다. 현포나 낭풍 또한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구들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신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신선에 견주고 있다. 세 번째 인용구는 “三公不換此江山”를 따온 것으로 여기서 ‘仙山’ 역시 부용동을 가리킨다. 네 번째 시조에서 인용한 구절은 ‘仙界’를 ‘인간세상이 아닌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예는 ‘삼신산’으로써 부용동을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윤선도는 부용동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자신을 이 곳에 사는 ‘芙蓉仙人’¹⁷⁾으로 칭하고 있다. 이들 예로 볼 때, 고산은 ‘부용동:선계:仙人(자기자신):바깥 세계:塵世:俗客’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부용동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武陵桃源’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이상향을 만나게 된다. 앞서 무릉도원의 전형으로 ‘완화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곳이 ‘인간 중심의,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생활의 터전이었다면, 고산의 시구를 통해서 보는 이상향은 ‘神仙’이 사는 곳, ‘인간세상이 아닌 곳’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려져 있다. 바깥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는 무릉도원이나 완화계나 부용동이나 모두 마찬가지로이지만, 부용동의 주인은 ‘仙人’ 또는 이에 비견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17) “又與芙蓉仙人石室較清趣”(《季夏用前韻賦臨鏡臺, 又次》)

있다. 우리는 이 유형의 이상향을, ‘武陵桃源型’과 구분하여 ‘蓬萊型’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봉래산’은 앞서 인용한, 신선세계를 가리키는 모든 이름들을 대표한다.

‘봉래형’ 이상향은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외에도,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모든 俗人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南海仙區雖莫及 남쪽 바다 신선의 땅에는 미칠 수 없지만
東湖奇景亦無加 동호의 기이한 경치 또한 더할 것이 없구나
(〈季夏復寄一律, 次韻以酬〉)

芙蓉城是芙蓉洞 부용성은 바로 부용동
今我得之古所夢 지금 내가 얻었으니 옛 사람 꿈꾸던 곳이라네
世人不知蓬萊島 세상 사람들은 봉래섬인 줄 알지 못하고
但見琪花與瑤草 다만 기이한 꽃과 아름다운 풀¹⁸⁾만 보네
(〈戲次方丈山人芙蓉釣叟歌〉)

인용구 모두 부용동을 봉래에 비기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시구에서 고산은 ‘부용동 안에는 신선들의 자취가 매우 많다. 또 기이한 봉우리들이 둘러 서 있어 그 모습이 완전히 부용꽃잎같다. 아마도 이 곳이 예부터 말하던 부용성인 듯하다.’¹⁹⁾라고 註를 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 형세의 아름다움을 부용꽃을 들어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경치가 특히 잘 묘사된 시로 <初得金鎖洞作>과 <黃原雜詠 三首>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금쇄동을, 후자는 부용동을 읊은 것이다

鬼刻天慳秘一區 귀신이 깎아놓고 하늘이 아낀 비밀스런 한 구역
誰知眞籙小蓬壺 뉘 알았으리, 진록²⁰⁾의 작은蓬壺²¹⁾인 줄.

18) 琪花와 瑤草는 모두 仙境에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다.

19) 洞裡仙跡甚多. 且奇峰環立 其形宛似芙蓉花瓣. 疑是古所謂芙蓉城也

瓊瑤萬仞神仙窟 옥같은 신선굴 만 길이나 높은데
 山海天重水墨圖 산 바다의 수묵화 천 겹이나 펼쳐졌네.
 (〈初得金鎖洞作〉)

誰能創此朴而工 누가 이처럼 질박하고도 공교하게 만들었는가?
 豪縱由來造化翁 자유롭고 호방함은 조화옹에게서 말미암았구나
 傍日臨風若雲谷 해를 곁에 두고 바람에 임하니 구름 골짜기같고
 宅幽勢阻勝盤中 집은 그윽하고 지세는 험하여 바위 가운데 빼어나네
 玉槽飛瀑穿香霧 옥구유에 나는 폭포 향기로운 안개 꿰뚫고
 石甕寒潭映碧空 돌단지의 차가운 못에 푸른 하늘 비치네
 十里蓬壺天賜履 십 리의蓬壺는 하늘이 내리신 영토이니
 始知吾道未全窮 비로소 내 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줄 알겠네
 (〈黃原雜詠 三首〉·1 全文)

蓬萊誤入獨尋眞 봉래에 잘못 들어 홀로 신선을 찾는데
 物物清奇箇箇神 물마다 맑고 기이하며 날날이 신묘하네
 峭壁默存千古意 가파른 절벽에는 천고의 뜻 말없이 담겼고
 穹林閑帶四時春 드넓은 수풀에는 사철 봄이 한가롭게 돌렀네
 (〈黃原雜詠 三首〉·2)

蝸廬君莫笑 달팽이집이라 그대 비웃지 마오
 面面畫新成 면면마다 새롭게 화폭을 이룬다오
 已得長春圃 이미 늘 봄인 양 푸른 밭을 얻었으니
 何須不夜城 어찌 불야성이 필요하리?
 (〈黃原雜詠 三首〉·3)

‘만 길이나 높은 신선굴’ ‘험한 지세’ ‘나는 폭포’ ‘향기로운 안개’ 등은 신선세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이다. 신선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

20) 眞籙은 道教의 符籙을 가리킨다.
 21) 蓬壺는 蓬萊山을 가리킨다. 봉래산은 모양이 호리병같이 생겼으므로 蓬壺라고도 한다.

고 있는 <遊天台山賦>²²⁾를 통해 '蓬萊'型 이상향의 편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그 곳은 아득하게 인적이 끊어진 깊은 곳에 있으며²³⁾ 仙都에 이르는 길에는 폭포가 마치 날아갈 듯 쏟아지고²⁴⁾ 만 길이나 되는 깊은 계곡 물이 흐르고 있으며, 돌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蔦葛·細草·높이 솟은 소나무 등이 있고 난새와 봉황이 날아다닌다.²⁵⁾ 仙都에 이르면 玉臺가 있고 桂樹·五芝가 있다. 바람은 향기를 머금고 불고 있으며, 醴泉이 솟아오르고 우뚝선 建木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琪樹는 가지가 훑 정도로 구슬을 드리우고 있다. 王喬²⁶⁾는 학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른다.²⁷⁾

이같은 仙境의 요소는 위 윤선도 시에 드러나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것은 부용동과 금쇄동의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윤선도가 부용동이나 금쇄동을 별천지 또는 仙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두보가 완화계 초당을 무릉도원처럼 조성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선도는 부용동을 봉래산과 같은 仙境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처음 보길도를 발견하여 터를 잡고 집을 지었을 무렵 주변의 기이한 자연물들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孤山年譜에 의하면 51세 때 보길도 황원포에 내려 터를 닦아 '芙蓉洞'이라 이름지었다는 기록²⁸⁾이 있다. 앞서 인용한 <戲次方丈山人芙蓉釣叟歌>

22) 孫興公, <遊天台山賦一首 并序>, 『文選』 11권 (小尾郊一 編著, 集英社, 1974·1983) 并序에 보면 “天台山者 蓋山嶽之神秀也 涉海則有方丈蓬萊 登陸則有四明天台 皆玄聖之所遊化 靈仙之所窟宅.”(천태산은 못 산들 가운데 특히 신령스럽고 빼어난 것이다. 바다를 건너면 방장·봉래산이 있고, 육지를 오르면 사명·천태산이 있는데 모두 성인이 노닐면서 신선으로 화한 곳이요, 신선이 굴을 파고 거주했던 곳이다.)이라 하여 천태산을 三神山과 대등한 仙山으로 취급하고 있다

23) 遊彼絕域 幽邃窈窕.

24) 瀑布飛流以界道.

25) 臨萬丈之絕冥 踐莓苔之滑石 搏壁立之翠屏 援葛藟之飛莖.

26) 仙人의 이름.

27) 八桂森挺以凌霜 五芝含秀而晨敷 惠風佇於陽林 醴泉涌溜於陰渠 建木滅景於千尋 琪樹璀璨而垂珠 王喬控鶴以沖天

自註에 부용동을 가리켜 ‘이 곳이 예부터 말하던 芙蓉城인 듯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부용성이란 옛날 전설에 나오는, 仙人이 사는 성을 말한다.’²⁹⁾ 게다가 고산이 자신을 ‘芙蓉仙人’으로 자칭한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부용성: 선인:: 부용동: 자기자신

과 같은 관계로 인식했음이 분명해진다. 同 연보에 의하면 ‘동굴 북쪽 산허리 岩山은 그 형세가 매우 뛰어난데 여섯 겹으로 된 石門을 지나면 翠壁層臺가 있다. 그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이름하여 洞天石室이라 했다.’³⁰⁾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洞天’ 또한 신선이 사는 곳³¹⁾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보길도의 ‘朗吟溪³²⁾ 동쪽 溪岸에는 長方形의 못이 있고 그 못 안에 원래 3基의 怪石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三神山島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³⁾ 이처럼 윤선도는 보길도에 터를 잡을 때부터 ‘仙境’에 대한 像을 가지고 그에 의거하여 부용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간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³⁴⁾ 이때 그는 목적에 따라 자신을 환경에 ‘동화’시킴과 동시에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자기의 환경에 의미를 부여한다.³⁵⁾ 윤선도의 경우 보길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에 약간의 인공적 변화를 주고 仙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부여하는 정도에서 ‘조절’을 함으로

28) 『孤山先生年譜』 1권, 『고산유고』(尹孤山文化事業會 1996), 13면

29) 諸橋轍次, 『大漢和辭典』·9권 (東京: 大修館書店, 1958·1985)

30) 같은 곳. 洞北山腰巖山絶特 度六重石門 有翠壁層臺 作小屋於其上 命曰洞天石室.

31) 諸橋轍次, 앞의 책 9권. 洞天 안에 洞天 36곳이 있는데 모두 眞仙이 살고 있다고 한다.

32) 부용동의 主山인 격자봉 서쪽 세 번째 골짜기이다.

33) 鄭腫昨, 「尹善道の 芙蓉洞苑林에 관한 研究」, 『孤山研究』 창간호, 1987.

34) C. Norberg-Schulz, 『實存·空間·建築』(김광현 역, 泰林文化社, 1991), 13면.

35) 피아제에 의하면 ‘同化’란 유기체가 그 주변에 있는 대상에 대하여 행하는 작용이고, ‘조절’은 유기체에 의한 환경의 수정을 말한다. 같은 책에서 재인용, 11-12면

씨 부용동에 '仙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단지 수동적으로 보길도라는 환경에 종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 幽居地를 구현하겠다는 그의 의도 내지 계획에 따라 仙境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은 杜甫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간의 내부는 인격의 내부에 대한 하나의 표현³⁶⁾이라 할 때 완화계 초당과 부용동 석실·수정동 띠집은 두 사람이 幽人으로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완화계 초당이나 부용동·금쇄동은 俗界에서 떨어진 궁벽한 곳에 있고 두보와 윤선도의 이상적인 幽居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처럼 '인간이 사는 무릉도원'과 '신선이 사는 봉래산'을 모델로 하여 조성했다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보의 시에서 완화계는 '나'와 더불어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등장하지만 고산의 시에서는 몇 편의 시조를 제외하고는 '나'이외에 타인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산의 경우 海南에 本家が 있고 보길도 부용동은 別莊의 성격을 띠지만³⁷⁾ 고산의 연보 및 시작품, 기타 자료를 보면 그 곳 樂書齋를 중심으로 몇 군데 건물에 자제·문인·노비 등 가솔이 거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족이나 생활의 흔적은 삭제하고 仙人 및 선인의 삶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시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보의 완화계는 생활의 공간, 실용적·현실적 공간의 성격을 띠는 반면, 윤선도의 부용동·금쇄동은 일상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超俗的·非現實的 공간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IV. 남은 문제: 맺음말을 곁하여

지금까지 <題鄭仁觀巖 四首>를 실마리로 하여 윤선도에게 있어 부용

36) 같은 책, 50면

37) <戲次方丈山人芙蓉釣叟歌>의 말미에 '부용동은 바로 이 늙은이가 사는 바닷가 별장의 골짜기 이름이다(芙蓉洞卽老農所居海庄洞名)'라는 自註가 붙어 있다.

동·금쇄동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에게 이 장소는 단지 시조문학의 산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후반기 삶의 구심점이자 평생 염원해 온 理想郷이었다. 고산의 나이 30세에 경원으로 처음 유배를 갔을 때 기이한 형태의 鄭仁觀巖을 보며 두보의 초당이 있던 완화계를 모델로 이상적인 幽居의 공간을 꿈꾸게 된다. 그 염원이 20년 후에 실현된 것이 바로 부용동·금쇄동이었던 것이다.

두보에게 있어 ‘완화계’와 윤선도에게 있어 ‘부용동’은 각각 ‘武陵桃源’과 ‘蓬萊山’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幽居 공간이었다. 이같은 공간조성의 특성은 자신을 처자를 거느린 家長 혹은 생활인으로서 인식한 두보와, 仙人의 삶의 궤적을 표방하고자 했던 윤선도의 내면--정신세계--의 지향점의 차이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 외에 두 사람의 경제적 기반도 그같은 차이를 유발한 큰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평생 생계를 꾸려갈 만한 富나 지위를 지니지 못해 친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했던 두보는 山水를 美의 대상으로 하여 玩賞할 생활의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 자연은 생활터전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윤선도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재산 덕에 생계나 가족부양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도 밝히고 있듯 ‘山水癖’의 취향에 따라 유거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두보가 성도에 정착한 것은 자신의 염원이나 취향, 의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도움을 줄 만한 인물--嚴武--이 成道尹으로 부임했기 때문이었고, 윤선도의 경우는 자신의 의도와 취향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완화계는 ‘俗界的 仙郷’의 성격을 띠는 반면, 윤선도의 부용동은 말 그대로 ‘別世界的 仙郷’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謝靈運(385-433)은 이같은 차이를 ‘衣食’과 山水’라는 말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衣食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山水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맞는 것이다.³⁸⁾ 여기서 타고난 성품은 달리 ‘취향’을 의미하

38) 夫衣食 人生之所資 山水 性分之所適. 謝靈運, 『游名山志』, 李文初의 『中國山水詩史』 (東高等教育出版社, 1991, 26면)에서 재인용.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보나 윤선도 모두 俗界의 雜事를 떠나 자연 속에서 유거하였지만 여러 조건이나 상황상 두보는 ‘衣食’의 추구에, 윤선도는 ‘山水’의 추구에 좀더 비중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이같은 차이는 연원을 거슬러 陶淵明으로 대표되는 田園詩와 謝靈運으로 대표되는 山水詩의 계보에 편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물론 두 사람의 시 전체가 아닌, 성도 시절과 부용동 시절에 쓰여진 시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한 理想郷에 대한 두 시인의 수용에 있어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 기반이 되는 思想的 성향이다. 두보는 ‘내 몸은 반은 官吏, 반은 은둔자³⁹⁾라 했고, 윤선도도 ‘평생에 배운 것은 임금과 백성의 일에 있으니/세상을 피했으나 세상을 잊은 것은 아니다⁴⁰⁾라 했듯, 그들의 幽居는 老莊的 성향에 기반을 두면서도 임금을 도와 經世濟民하고 ‘致君堯舜上’⁴¹⁾에 뜻을 둔 전형적 儒者였기 때문에 완화계와 부용동에 유거해 있는 동안에 쓰여진 시도 이 두 사상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이 점은 앞으로 더 논의할 문제로 남겨두고 지금은 그 가능성만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윤선도, 두보, 이상향, 幽居, 무릉도원형, 봉래산형, 부용동, 완화계

K C I

39) “肯信吾兼吏隱名”, <院中晚晴懷西郭茅舍>, 『杜少陵詩集』 14권.

40) “平生所學在君民 我雖遜世非忘世”, <次韻酬李季夏>

41) ‘임금을 요순보다 훌륭한 성군이 되도록 보좌한다’는 뜻으로, 두보의 시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杜少陵詩集』 卷1)과 윤선도의 『夢天謠跋』 孤山遺稿 別集. 에 나온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윤선도, 『孤山遺稿』, 尹孤山文化事業會, 1996.
이형대 외 3인 옮김, 『國譯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仇兆鰲 撰, 『杜詩詳註』
鈴木虎雄 註解, 『杜少陵詩集』, 東京:日本圖書 センター, 1978.

2. 논저

- 박준규, 「孤山의 水晶洞苑林과 山中新曲」, 『孤山研究』 2호, 1988.
신은경, 「杜甫·尹善道·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2000. 12.
尹焯, 「甫吉島識」, 『實錄 孤山尹善道』, 尹承鉉 編著, 사회복지저널사, 1993.
이창룡, 『韓中詩의 比較文學的 研究』, 一志社, 1984.
全英蘭, 『杜甫, 忍苦의 詩史』, 태학사, 2000.
鄭鐘旻, 「尹善道の 芙蓉洞苑林에 관한 研究」, 『孤山研究』 창간호, 1987.
C. Norberg-Schulz, 『實存·空間·建築』, 김광현 역, 泰林文化社, 1991.
諸橋轍次, 『大漢和辭典』·9권, 東京:大修館書店, 1958·1985.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tion of Utopia in Yun Seon-do

–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Tu Fu –

Shin Eunkyung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meaning of Puyong-dong in Pogildo where has been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place in understanding Yun Seon-do's literature, notably sijo poems such as "The New Songs in the Mountain" and "The Fisherman's Song of Four Seasons." Unlike related other studies, which see this place as a background for the composition of the sijo poems, this article considers the place as Utopia for Yun Seon-do. Utopia, usually, refers to an imaginary ideal place where does not exist in real world. However, given that, as an ideal residence, Yun had dreamed a place where was located apart from worldly life and he made a companion with nature, Puyong-dong can be said a kind of embodied Utopia.

A poem entitled "Inscription on Jeongingwan Rock" composed while in his exile at Kyongwon exhibits that Tu Fu's thatched house in Ch'engtu functions as a model of Utopia for Yun. Although Puyong-dong and thatched house in Ch'engtu function as Utopia for respectively Yun and Tu Fu,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s as Utopia is rather different. Given two types of Utopia, the type of Mureung-dowon where is deeply related with human's daily life and that of Mt. Pongrae where is transmitted that a Taoist hermit(神仙) live, we can categorize Yun's Puyong-dong as the first type and can do Tu Fu's thatched house as the second type.

Key words : Yun Seon-do, Tu Fu, Utopia, Puyong-dong, thatched house, Ch'engt'u, Mt. Pongrae, Mureung-dowon

신은경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전자우편 : fnsek@woosuk.ac.kr

K C I